순천시 '팔마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된다

고려시대 지방관 '최석' 청렴 기려…1281년 세운 것 추정 역사적 가치↑

"지방관 공직 윤리·청렴 정신 들어…청백리 정신 보존·활용에 최선"

순천시는 '팔마비(八馬碑)'가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고 최근 밝혔다.

순천시는 팔마비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을 위해 팔마비가 갖는 역사적 의미 조명과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왔으며, 지난 20일에는 허석 순천시장이 문화재청을 방문하여 팔마비의 보물지정 의미를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설명하였다.

팔마비는 고려 말 승평 부사를 지내고 전출한 최석(崔碩)의 덕을 기려 고을 사람들이 세운 비석으로, 지방관의 선정과 청덕을 기리는 송덕비의 효시이자 청백리의 비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려사'에 따르면 "최석이 비서랑직을 받아 승평부를 떠나게 되자 당시 승평부에서는 관례에 따라 말 8필을 최석에게 주었다. 최석이 개성에 도착한 후 이 말 8필에 승평에서 낳아온 자신의 망아지까지 되돌려 주었다. 이 일을 계기로 승평부에서는 퇴임 태수에게 말을 바치는 폐단이 끊어지게 되고, 고을 사람들이 최석의 덕을 기리는 송덕비를 세우고 '팔마비(八馬碑)'라 이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최석의 팔마비는 1281년 12월 이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의 팔마비는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에 훼손된 비석을 1617년(광해군 9)에 순천 부사 이수광이 복원하여 다시 세운 것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 팔마비의 역사 속에는 지방관의 공직 윤리와 함께 청렴 정신을 지켜온 순천 시민 정신이 들어있다."며 "이번 팔마비 보물 지정을 통해 청렴문화가 시대의 화두로 부상하기 바라며, 팔마비와 청백리정신의 보존·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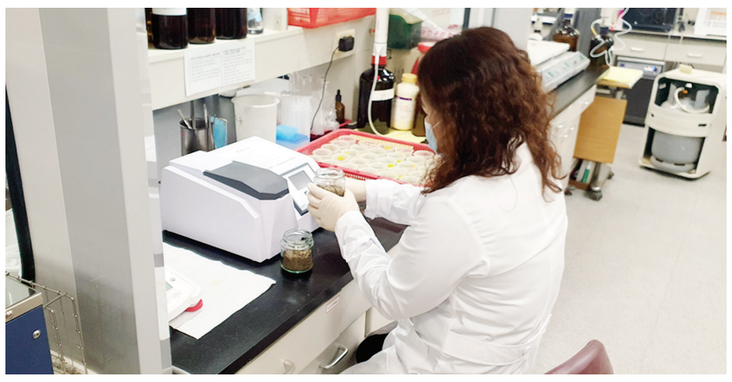
허석 순천시장은 2018년 시장으로 당선되어, 민선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팔마비에서 취임선서를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번 지정예고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고흥군,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무료 검사 실시

부숙도 검사 실시 후 퇴비 배출 홍보 나서



고흥군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부숙도 검사 실시 후 퇴비를 배출해야 한다며 홍보에 나섰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는 연 2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하며, 계도기간 중 418건의 검사결과 98.8%가 적합 통보를 받았다.

고흥군 관내 축산 농가라면 누구나 직접 채취한 퇴비 시료 500g을 밀봉 봉투에 담아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면 무료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축산 농가에서는 퇴비 부숙도 검사가 퇴비화의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면서 정기적인 교반 작업에 노력해야 한다"며 "금년도 분석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장비와 인력확보 및 축산농가 현장기술지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광양시,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추진

광양시는 어가의 어업경영 개선과 해양사고 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2021년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은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연안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2월 28일까지 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061-797-3364)에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품목은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LED등(燈), 유류 절감장치, 노후기관 대체,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설비 등이다.

최종 사업자는 사업지침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되며, 수협중앙회의 공동구매 단가계약이 체결된 장비에 한해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사업 수행은 전남동부수협 광양지점이 담당하며 5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후 5년간 시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일명 '키 크는 쌀' 유기농 '하이아미' 본격 출하

여수시가 유기농 쌀 생산농가, 농협과 협업을 통해 '맛있고(하이아미), 건강하며(유기농), 가격부담이 적은(적정가격)' 유기농 '하이아미'를 본격 출하한다.

시에 따르면 유기농 '하이아미'는 여천농협 로컬푸드매장에서 다음달 1일부터 설맞이 본격 판매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이아미'는 2008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순수 국산품종으로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일반 쌀보다 약 31% 많다. 아미노산은 근력과 지구력을 높이며 부족 시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등이 나타난다.

특히 히스티딘(49%), 메티오닌(48%), 라이신(44%)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아 아이들의 성장과 발육에 좋은 관계로 일명 '키 크는 쌀'로 불린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일본품종(고시히카리, 추청벼 등) 못지않은 최고의 밥맛을 자랑하며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소비자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지만, 수확량이 '신동진'보다 10% 정도 떨어져 널리 재배되지는 못했다.

여수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역적응성 시험 등을 거쳐 쌀 소비 트렌드 변화와 밥맛 저하, 유기농 쌀 생산량 급증 및 안전성 확보 등 관내 쌀 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품종으로 '하이아미'를 선정해 생산단지를 조성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유기농 '하이아미'는 맛과 건강,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까지 고려해 다른 유기농 브랜드 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 상품 컨셉에 맞는 포장재 개발과 생산단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쌀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우리시 유기농 '하이아미' 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25만원 다음달부터 신청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여수시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씩 지급키로 한 가운데, 지난 25일 시의회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에 힘입어 내달 1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18일 0시 기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외국인등록을 한 다문화 가족으로, 28만 5000명에게 지급되며 712억 5천만 원이 소요된다.

지급 절차는 최대한 간소화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인 중 다문화가족과 18일 이전 출생아 중 주민등록 미신고자도 출생신고를 할 경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26일까지며, 신청 첫 주인 2월 1일부터 5일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청인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 가족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가족을 대리하여 일괄 신청 수령이 가능하고, 동거인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지역경제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위해 여수지역 내에서 8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유흥업소,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3차 대유행이 지속되고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금년 1/4분기가 시민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로 판단돼 지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이 그동안 생활불편과 영업손실을 감수하며 방역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위로와 격려가 되고, 특별히 지역 내로 사용제한을 둔 선불카드 지급으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활력이 돌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기부를 원하는 시민의 경우 '지원금 미수령 신청서'를 받아, 추후 세입으로 환원된 지원금을 집합제한과 금지 등으로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